

화재는 갈수록 대형화...소방청사는 날로 노후화

광주 세곳 중 한곳 20년 넘어...장비 보관공간 부족·신형장비 도입 불편 송정5일시장 등 잇단 화재...예산 한계로 이전·증축 등 시설 개선 차질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인 광주시 소방청사 세 곳 중 한 곳은 지어진 지 20년 넘는 노후 청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30년이 지난 소방청사도 6곳에 달해 소방장비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신형 장비를 도입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환경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1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체 청사 34곳 중 11곳(32.3%)은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했으며, 6곳(18%)은 30년이 지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부소방서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광주역(驛)사’가 지어졌던 곳에 세워졌는데, 당초 1950년 6·25 전쟁 도중 폭격으로 소실됐다가 1952년 재건축, 1971년 9월 증축한 이후 지금까지 쓰이고 있

다. 무려 54년여가 지난 광주의 대표적 노후 공공 건물이다.

서부소방서는 1986년 준공된 뒤 39년이 지났으며, 지난 2017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산소방서 또한 1989년 준공한 뒤 36년 세월이 지났다.

동구 지산119안전센터와 북구 두암119안전센터, 서구 염주119안전센터는 모두 1992년 준공돼 33년 된 노후 청사를 이용 중이다.

북부·남부소방서, 금호·송정·상무119안전센터 등 5곳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노후화로 소방관들이 겪는 불편도 크다. 건물 자체가 수십년 전 근무 환경을 바탕으로 만

들어져 있는 반면 소방관 인력이 늘고 소방장비 규격이 커지면서 근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부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은 “최근 노후한 굴절차(사다리차) 한 대를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차량 높이(3.7m)가 차고 높이(3.8m)에 달해 어렵사리 입·출고를 하고 있다”며 “혹시나 차량이 출렁거리려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차량을 천천히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소방장비를 보관할 창고 공간도 부족한 터라 소방관의 사무 공간을 압축해 가며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 동부소방서의 경우 노후한 건물이 하중을 못 버틸 가능성이 높아 증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방관은 “과거에는 소방 장비와 인력이 많지 않아서 지금의 청사 규모로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소방 인원도 두 배 넘게 늘고 장비 수와 종류도 늘어 청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건물 부

지를 매입해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물론이고 신축 기간 동안 소방차량과 장비들을 보관하고 출동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해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 28억 9000만원을 투입해 동부소방서 사무실 도색 및 리모델링, 지산119센터 외벽 마감재 등 보강공사·사무실 리모델링, 광산소방서 별동 증축 등을 진행했다.

다만 소방교부세는 예산이 한정된데다 매년 교부금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불안정하며, 노후 소방서일수록 건축물 보강 공사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전·개축 등 조치가 필요하지만, 소방 관계자들은 이조차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소방본부가 올해 202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 청사 건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터라 대규모 개선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청사일수록 환경개선 요구가 많은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합동청사 건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당장은 환경개선 수요를 조건해 시급한 단계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합동청사 건립 이후 본격적으로 청사 이전 등 큰 규모의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소방본부는 오는 4월까지 청사 이전·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 등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소방청사 개선사업 수요 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에 청사 개선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를 거쳐 중·장기(5개년) 소방청사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기심에 불장난하다...염소 축사 태운 학생

호기심에 불장난을 하다 염소 축사를 태운 10대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성경찰은 A(14)군을 실화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한 염소축사에서 불장난을 하다 축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종이컵에 불을 붙이던 A군이 열기에 놀라 바닥에 종이컵을 떨어뜨리면서 불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축사 3개 동을 태우고 1시간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축사에는 염소가 없는 상태로 창고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과 B(10)군이 함께 불장난을 했지만 이들이 축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A군만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재 대피 이렇게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아린이집 원생들이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정희 저격’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10·26 사건으로 내란목적살인과 내란미수죄가 적용돼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만에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10개월여 재심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확한 총격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살인마’와 ‘정치범’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시민 무응답·오접속 따른 119 신고 11% 감소

지난해 광주 시민들의 무응답·오접속으로 인한 119 신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119 신고 접수는 28만9597건, 일평균 791.2건으로, 2023년 31만9971건보다 9.5%(3만374건) 감소했다. 이 중 무응답·오접속 신고 건수는 2023년 8만7505건에서 2024년 7만7868건으로 11%(9637건) 줄었다.

소방당국은 이용자의 실수가 줄어든 점과 당국의 정확한 절차가 강화된 점이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무응답은 119 신고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장시간 대답이 없는 경우, 오접속은 통화 연결이 됐지만 신고자가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밝히는 경우다.

주로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긴급 통화가 가능해지는 특정 버튼이 잘

못 눌러는 사례가 많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부터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무응답 전화 시 위급 사항 재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라도 신고 내용이 접수되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미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

나훤원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상황에 긴급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완도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안전모 착용 안해

완도의 한 중학교 옹벽 보강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9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완도군 한 중학교 내진 보강 공사 현장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가 1.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

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완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안전판에서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